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알았어도 단정하지 말라

학승이 물었다.
“제방의 선지식은 모두 입으로 말씀하십시오만 노스님께서는 어떻게 사람을 교시하십니까?”
조주 스님은 발뒤꿈치로 화로를 툭 쳐 보았다.
학승이 말했다. “그것이었군요.”
조주 스님이 말했다.
“흡사 노승의 발뒤꿈치를 아는 것 같구나.”

問 諸方盡向口裡道 和尚如何示人 師脚跟打火 爐示之 云莫便是也無 師云 恰認得老僧脚跟

조주 선사는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사람을 가르치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발뒤꿈치로 화로를 툭 친 것이다. 그런데 조주 선사는 왜 발로 화로를 툭 쳤을까?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이고 싶었던 것일까? 이것 역시 화두가 아닐 수 없다.

이 화두는 조금만 듣고 공리해보면 금방 조주 선사의 뜻을 캐치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이 조주 선사의 뜻을 안다면 황벽 스님이 일제 스님에게 내렸던 방(榜)의 뜻도 알 수 있다. 만일 나에게 조주의 참뜻을 묻는다면 “끝 속에 칼을 감추어 놓은 것이다”라고 말하겠다.

그런데 화두 참구 끝에 설사 그 뜻을 알았다해도 ‘그것이이로군요’ 하고 단정하지 마라. 단정하면 상(象)이 생긴다. 그러면 그것은 선사의 발뒤꿈치를 아는 것에 불과해진다. 선사의 뜻과는 천리만 리 멀어진다.
학승이 물었다.

“대도를 가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이 소금을 암거래로 파는 놈아!”
학승이 물었다.
“그럼, 대도를 갈 때는 어떻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나의 통행증을 돌려다오.”

問 不行大道時如何 師云 者販私鹽漢 云卻行大道時如何 還我公驗來

승려가 되어서 수행자에 맞는 바른 길을 가지 않는다면 부처를 팔아서 겨우 밥이나 얻어먹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하니 승려가 대도를 가지 않으면 사기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런데 설사 누가 대도를 간다고 해도 그 또한 틀렸다. 대도는 도를 깨달은 자만이 갈 수 있다. 그런데 대도를 갈만큼 참 도를 깨달은 자가 있는가? 있다면 그는 절대 “나는 대도를 간다”고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도는 따로 없기 때문이다. 공험(公驗)은 통행증을 말한다. 여기서 공험을 내놓으라고 말한 것은, 대도를 가고 있다면 너는 자격이 없는 자이니 깨달음을 얻었다고 인증한 통행증을 도로 내놓으라고 말한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본래 몸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노승을 알고 난 후부터는 그놈은 다르지 않

아.”
학승이 말했다.
“그렇다면 화상과 떨어진 생애를 가는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금생(今生)뿐만 아니라, 천생 만생에도 노승을 모르는 거야.”

問 如何是本來身 師云 自從識得老僧後 只這漢 更不別 云 與塵即與和尚隔生去 非但今生 千生萬生亦不識老僧

참된 선사(禪師)라면 단 한 번의 방문에도 방문자를 깨닫게 해준다. “나는 누구인가?”,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어찌 상대인가?’ 등의 공금증을 한 번에 날려버리게 해준다. 누구든 선사를 방문하면 즉시 부처가 된다. 방문 전에도, 방문 후에도 달라진 것은 없다. 그러나 방문자는 그 후 부처의 길을 간다.

그렇게 즉시 부처가 되고, 대승이 된다면 더 이상 선사를 찾지 않을 것이 아닌가? 한 방편의 대가된 그가 어찌 또 스승을 찾겠는가? 이런 격정을 조주 선사는 하지 않았다. 원래 조주를 몰랐으므로 앞으로 조주를 모르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선사는 사람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로 충분하게 생각하지 그가 알아주고 모시는 것 따위는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무불선원 선원장

운상민의 서화산책 나옹혜근 詩



청화산화안대산
우신하대추지안전

羅: 벌일 라, 그물 라
復: 회복할 복, 다시 부
塵: 티끌 진
刹: 절 찰

산하대지가 눈앞의 꽃이다

山河大地眼前花 萬象森羅亦復然 自性方知元清淨 塵塵刹刹法身(산하대지안전화 만상삼라역부연 자성방지원정진진찰법왕신)
산하와 대지가 눈앞의 꽃이요 삼라만상도 또한 그러하네. 바야흐로 자성이 원래 청정한 줄을 알았으니 먼지마다 세 계마다 법왕의 몸이로다.



서예가·동아미술상 수상



김호국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선경 해제 한국선과 선어록

능가경

달마 대사가 중요시 여긴 경전

중국의 선법은 보리달마의 중국도래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것은 달마도래 이전의 율한 선법이 실천되고 전승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계승된 모든 선법은 달마 후손들에 의해 형성되고 전개되며 전승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달마의 위상은 직접적으로는 중국에 도래한 사실로부터 찾을 수 있지만, 그 사상적인 배경으로는 달마가 중시했던 《반야경》과 《능가경》 등 기타 대승경전으로부터 찾아볼 수가 있다.

그 가운데 《능가경》은 헤카한데 정법안장을 전법하면서 부처의 소의경전으로서 전승되어 왔다. 이후로 《능가경》은 소위 능가전 내지 능가종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면서 초기선종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선종의 종지로 언급하고 있는 용어 가운데 불립문자 교외별전이라는 말의 사상적인 배경은 곧 《능가경》으로부터 계승되어 왔는데 구체적으로는 ‘무상품’에서 설해진 내용이다.

여기에서 부처님은 깨침을 터득한 밤부터 입멸하는 밤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설법을 하셨다고 하지만, 실은 부처님이 설하신 법은 한 글자도 없었다

‘불립문자’ ‘교외별전’은 능가경으로부터 계승 실천과 선적체행 강조

고 말한다.

그러나 설법이 없다는 말은 삼세제불과 완전히 동일하게 설했다는 의미로서 삼세제불의 설법에 대하여 한마디도 더하여 설했다든가 빠뜨리고 설했다는 것이 아님을 가리킨다.

《능가경》에서는 부처님이 수행하여 증득한 내용은 일체의 언어나 문자를 떠나 완전히 스스로의 내면에서 직관된 것이므로 범부 중생의 언어나 문자로써 표현하거나 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것은 오로지 실천, 곧 여기에서는 누구나 어디서나 선적 체험을 통해 얻어진다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능가경》에서는 이 비유를 계승하여 불도를 설하고, 그 진리의 소재를 표현하려고 했다.

달마는 곧 거기에 일체의 언어 및 문자를 초월한 무엇인가가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석존은 그저 고인의 행적에 어긋남이 없이 나아가는 것을 오직 자신의 신심으로써 나타냈을 뿐 어떠한 언어나 문자를 빌어 나타나지는 않았다.

달마는 일자불설(一字不說)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기에 불립문자 및 교외별전의 진의가 있음을 가르쳐주었다. 그런데 석존의 내면에서 깨친 자내증지(自內證智)를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여래정전선 밖에 없다고 가르친다.

곧 깨침을 터득한 이후의 선에서만 불교의 진의를

얻을 수 있으므로 그것을 자신이 직접 실수하는 것 외에 깨오의 길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능가경》에서는 선을 우부소행선(愚夫所行禪), 관찰의선(觀察義禪), 반연여선(攀緣如禪), 여래청정선(如來淸淨禪)의 네 종류로 설명한다. 우부소행선은 성문·연각·외도들의 경우 몸은 부정하고, 감각은 공하며, 마음은 무상하고, 제법은 무아임을 관찰하는 선법이다.

관찰의선은 인·법의 무아(無我) 및 제법의 무성(無性)을 관찰하고 점진적으로 경론 및 선론의 도리를 터득해 나아가는 선법이다.

반연여선은 반연여선으로서 무아법의 도리를 여실하게 알아서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선법이다.

여래청정선은 불지를 터득하여 자증성지(自證聖智)에서 중생을 제도하려고 부사의한 경계를 드러내는 선법이다.

또한 여래가 일체중생의 경우 번뇌를 정제하는 방식에 대하여 돈·점을 각각 네 가지로 비유하여 설명한다.

네 가지 점법은 다음과 같다.

1) 망교가 점으로 익어가는 것이지 돈으로 익어가는 것이 아닌 것과 같다. 여래가 일체중생의 번뇌를 정제하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곧 점으로 청정하게 하는 것이지 돈이 아니다. 2) 도예공이 그릇을 만드는데 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과 같다. 여래가 일체중생의 번뇌를 정제하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곧 점으로 청정하게 하는 것이지 돈이 아니다. 3) 대지가 점으로 만물을 생기시키는 것이지 돈으로 생기시키는 것이 아닌 것과 같다. 여래가 일체중생의 번뇌를 정제하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곧 점으로 청정하게 하는 것이지 돈이 아니다. 4) 사람이 음악, 서화, 갖가지 기술을 배우는데 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과 같다. 여래가 일체중생의 번뇌를 정제하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곧 점으로 청정하게 하는 것이지 돈이 아니다.

네 가지 돈법은 다음과 같다.

1) 명경이 돈으로 일체 무상(無相)한 색상을 드러내는 것과 같이 여래가 일체중생의 번뇌를정제하는 것도 또한 그와 같다. 돈으로 무상(無相)하여 무유소유의 청정경계를 드러낸다. 2) 해와 달이 돈으로 비추어 일체색상을 드러내는 것과 같이 여래가 중생의 과환을 없애주는 것도 그와 같다. 곧 돈으로 위한 까닭에 부사의한 지혜의 경계를 현시한다. 3) 장식(藏識)이 돈으로 분별하여 번뇌의 원인과 그 경계를 아는 것과 같다. 저 모든 범성불 혹은 법신에 의하여 드러난 부처인 화신불도 또한 그와 같다. 돈으로 중생이 처하는 바의 경계를 익히게 하여 그로써 수행자로 하여금 저 색구경전에 안주하게끔 한다. 4) 법신불이 시현한 화신불이 광명으로 비추는 것과 같다.

태고종 어른스님들께 드리는 호소문

귀의삼보 하옵고 법체정안하신 가운데 불사 원만히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저희는 총무원장을 역임한 운산스님의 어리석은 제자들로서 저희 스님과 종단의 어른 스님들께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만 종단과 개인 그리고 앞으로 종도들의 바람직한 수행과 교화 및 종단 안팎의 따가운 여론을 바로하기 위해서라도 어른 스님들께서 바르게 하여주시기를 다음과 같이 간절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1. 먼저 저희 스승이신 전 원장스님께 올립니다.

지금까지 재임 중 잘못에 관해 여러 번 참회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참회하시고 종단 사정기관의 심리에 적극적으로 임하시고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개진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2. 현 총무원장 스님께 올립니다

다시 한 번 옛 정을 생각하셔서 문제 푸는 길을 모색해주시기 간절히 청원 올립니다. 듣기로 운산스님은 검찰의 무혐의가 떨어졌을 때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종단이 이례서는 안 된다고 화해를 제안하셔서 연동축제 전날 화해의 약속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년 지기와 화해를 하신 그 마음으로 다시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해주시기를 거듭 청원드립니다.

운산스님은 천중사를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제안을 하시고 천중사에 동방불교대학을 옮겨가면 어떻겠느냐와 전승관 나머지공사를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묘한 접점을 가지고 있는 대학원대학교 문제도 머리를 맞대면 풀어지지 않겠습니까?

3. 종단의 어른 스님들께 올립니다.

지금의 방향은 안에서 보나 밖에서 보나 옆에서 보나 앞뒤에서 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종단의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서 종도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모으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종도들은 제대로 살피기에는 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모든 자료를 한 자리에 모아놓고 전문가들이 해석한 가운데 하나하나 낱알이 따져서 해결의 방법을 찾는 것이 다름의 소용돌이와 퇴보의 상태를 벗어나는 좋은 길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4. 호법원장 스님과 위원스님들께 올립니다.

당연히 그러하시겠지만 규정적용의 문제가 있었던 하급심의 과정을 세심하게 살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기를 간절히 청원 올립니다. 그리고 심리절차에서 전 원장스님의 진술을 차분히 받으시고 종헌 준엄에 따라 심리하시되 과실보다는 공덕을 더 살피라는 옛 어른들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살피시는 덕을 베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사상 총무원장을 역임한 이가 징계를, 그것도 최악의 징계를 당하는 것은 그 본인의 일만이 아닌 우리 종단 구성원 모두의 일이라는 것이 역사의 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비로우신 어른 스님들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리고 법체정안하신 가운데 불사 원만히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불기 2555년 9월 22일

운산화상 문도회원 일동 돈수 구매 합장